新문화 중심 '쿠무다', 부산문화 창달나선다

9월 15일, 부산문화재단과 문화예술 활성 업무협약

지역문화 발전 협력 비롯
예술인재 양성 교류 진행
부산문화 속 불교문화 발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는 9월 15일 쿠무다 지하1층 콘서트홀에서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부산지역에서 꽃피는 현대적 불교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KUmuda, 이사장 주석)는 9월 15일 쿠무다 지하1층 콘서트홀에서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과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소통한다. 협약에 따라 쿠무다와 부산문화재단은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지역 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교류와 지원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기타 기관 협의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과 차재돈 사무국장, 최기운 총괄운영본부장, 고건욱 실장 등이 참석했다.

부산문화재단 측에서는 이미연 대표이사를 비롯해 송수경 예술지원팀장, 안재홍 경영지원팀장, 김정 기획홍보팀장이 참석했다.

두 기관의 협약은 부산문화융성에 대한 뜻이 모였기에 가능했다.

주석 스님은 "부산에서 다양한 공연문화를 선도하고 예술인 지원과 문화예술 활성화에도 앞장서 온 부산문화재단과 협약을 맺게 되어 기쁘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문화예술 저변 확장에 앞장설 것"이라며 "부산 예술인과 시민 누구나 '최상의 행복'을 마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연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쿠무다가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문화 예술인들을 위해 지원해온 것을 잘 알고 있다. 지원받은 예술인들이 부산문화재단과 인연이 깊다"며 "이렇게 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주신 주석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쿠무다와 함께 부산 예술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는 2013년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북카페를 개설한 후 소규모 콘서트에서 대형 음악회에 이르기까지 자체 기획 공연을 꾸준히 마련해왔다. 2021년 12월에는 동해와 남해를 바라다보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2970㎡(898.4평) 규모의 복합명상문화센터를 열기도 했다.

이후 쿠무다는 문화예술 인재 양성에도 앞장서왔다. 동국대 장학지원을 비롯해 부산대 예술대학 발전기금 1억 원 지원 협약(매년 1000만 원 10년간), 대동대 외식서비스 후학 양성 5000만 원 지원협약(매년 1000만 원 5년간), 영산대 마이스(MICE) 5000만 원 후원 협약(1000만 원 5년간) 등 문화예술 인재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문화예술 인재양성의 폭을 더욱 확장하고자 재단법인 명경장학재단을 설립, 7월 7일 첫 행보로 동국대 문화예술 인재양성 지원금 3억 원 후원(3000만 원 10년간)을 약정했다.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을 통해 부산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부산을 창의와 품격을 갖춘 문화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1월 설립된 단체다.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창작기반 조성과 시민을 위한 문화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고종 제47기 수계산림 입소식 봉행

9월 14일 태고총림 선암사서…총 47명 입소



한국불교 태고종 제47기 수계산림 입소식이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봉행됐다.

한국불교 태고종(총무원장 호명) 제47기 수계산림 입소식이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봉행됐다. 순천 선암사 정수원(원장 시각, 선암사 주지)은 9월 14일 대웅전에서 제47기 수계산림 입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소식에는 남행자 37명, 여행자 10명 등 총 47명이 입소해 10월 14일까지 30일간 초급승려에게 필요한 기초의식 등을 교육받는다.

시각 스님은 "정수원은 출가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기본 소양교육을 이수하는 곳으로 엄격하고 정연한 교육과정이 진행된다"며 "남다른 각오로 함께하는 동안 서로를 살피고, 자비와 배려로 역경을 극복하길 바란다. 자신과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는 용맹심을 발휘하여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격려사에서 "욕지전생사(欲知前生事) 금생수자시(今生受者是) 욕지래생사(欲知來生事) 금생작자시(今生作者是)"라며, "선암사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사찰로 여러분은 복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명 스님은 "여러분들의 내일의 삶을 보려면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된다"며 "한 분 한 분이 열심히 마음을 닦고 수행하여 종단의 기둥과 대들보, 서까래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대표 선서를 진행한 혜월 행자는 "입소자 일동은 교육기간 동안 정해진 제반청규의 준수와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기초교육과정을 원만히 이수하여, 발심수행자로서 본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예비역불자, 호국불교포럼 개최

9월 14일 국회의원회관서

국군예비역불자연합회(회장 박대섭)가 9월 14일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불교가 국가발전에 끼친 영향과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제27회 호국불교포럼을 개최했다.

국군예비역불자연합회가 동국대 불교학술원 · 정각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주최한 행사에는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대섭 국군예비역불자연합회 회장은 "이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 속에 면면히 내려오는 호국불교 사상과 활동, 그리고 현대 불교가 나아가야 될 발전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발표를 맡은 임충빈 前 육군 참모총장은 불교가 국가에 끼친 영향과 현대 불교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청소년과 군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럼은 두 섹션으로 나눠 먼저 현재의 한반도 안보정세와 호국 의승활동을 조명했다. 노덕현 기자

우리고장 쌀, 우리지역 소외계층에게

향일암, 9월 13일 여수시에 자비나눔 쌀 3000kg 전달



기도성지 여수 향일암이 9월 13일 지역주민을 위한 자비나눔 쌀 3000kg을 여수시에 전달했다.

기도성지 여수 향일암(주지 연규)이 9월 13일 지역주민을 위한 자비나눔 쌀 3000kg을 여수시(시장 정기명)에 전달했다.

여수시청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주지 연규 스님, 이영희 신도회장을 비롯해 정기명 시장, 박성미 의원(여수시의회), 이광일 의원(전라남도의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된 '자비나눔 쌀'은 여수에서 생산된 지역농산품(거북선에 실린 쌀)으로, 돌산, 삼산면, 남면, 화정면 등 지역 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전달될 예정이다.

연규 스님은 전달식에서 "자비나눔 쌀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지역민들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며 "향일암이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기명 시장은 "해마다 향일암에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위해 쌀을 구입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지역의원들이 참석해 향일암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박성미 의원은 "향일암은 불교를 넘어 지역 최고 관광명소로 외부인들이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교통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도로개설과 안내이정표 설치, 유람선 정박시간 조정, 교통약자용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을 건의했다.

연규 스님은 "향일암이 좋아지면 여수시가 좋아진다. 향일암이 문화와 역사, 종교시설이 함께하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향일암은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한 암자로, 우리나라 4대 관음기도처 중 하나이며 국내 최고의 해돋이 명소로도 이름이 높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사 서광당 재덕 스님 영결·다비식 열려

9월 13일 선운사 만세루와 연화대서 봉행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9월 13일 서광당 재덕 스님 영결식 및 다비식을 선운사 만세루와 연화대에서 봉행했다.

만세루에서 봉행된 영결식에서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아무라 수행이 깊어도 괴로움을 없앨 수 없으니, 괴로움에 얽매이지 않는 공부야말로 참 공부"라며 "풀 한포기 뽑는 가운데 도가 있고 밥 한그릇 먹는 일상에 도가 있다던 가르침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애도했다.

범여 스님은 추도사에서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동진 출가, 만암 스님 등 당대 큰스님들과 수행하셨고 한국전쟁에 참전, 제대 후 출가 본분인 수행과 전법의 길을 걸으셨다. 스님께서 경험하신 삶은 그대로가 귀감이 됐다"고 말했다.

영결식을 마친 스님의 법구는 만장을 앞세우고 선운사 연화대로 이운돼 불교전통방식에 따라 다비됐다.



서광당 재덕 스님 다비식 모습.

서광당 재덕 스님은 1940년 순창 구암사서 15세의 나이로 출가해 만암 스님 문하에서 강원을 수료하고 구족계를 수지했다. 동국대 국어국문과 졸업 후 강원도에서 30여 년간 어린이법회와 청소년법회, 청년법회를 통해 인재불사에 나섰다. 이후 순창 강천사로 돌아와 불사와 불법 홍포에 매진, 선운사 노후수행마을에서 수행 중 9월 11일 열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